

예레미야서의 핵심

성경: 렘 2:13, 17:9, 13:23, 23:5-6, 33:16, 31:33-34

- I.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껍질을 ‘깨뜨리고’ 속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이 핵심이 성경 전체의 완전한 가르침이다.
- I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절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심을 계시해 준다.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원천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 렘 2:13, 고전 12:13, 롬 11:36.
1.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기뻐하며 물을 길어야 한다 — 사 12:3-4, 요 4:10, 14, 롬 10:12, 살전 5:16-18, 4:3상.
 2. 이사야서 12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는 것, 곧 그분을 마시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시 36:8, 요 4:14, 7:37, 고전 12:13, 계 22:17, 대상 16:8, 시 105:1, 116:1-4, 12-13, 17.
 - a.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수, 곧 생명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하나님의 실지적인 구원은 생수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고전 15:45, 요 7:37-39, 계 7:17, 21:6, 22:1, 17.
 - b. 원천은 근원이고, 샘은 근원에서 솟아올라 나오는 것이며, 강은 흐름이다. ‘구원의 샘들’이라는 용어는 구원이 근원 곧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원천이시고(사 12:2),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과 체험을 위한 구원의 샘들이시며(요 4:14), 그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흐름이시다(7:38-39).
 - c.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과 힘과 노래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사 12:2-3.

메시지 2 (계속)

- d. 신성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는 길은 회개하고, 부르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을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사 12:4-6.
- B.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생수는 우리에게 침투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과 하며 우리에게 동화되어, 우리를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 사 12:3, 요 4:10, 14, 롬 12:2, 8:29-30.
- C.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 요 4:14하.
1.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세 단계로 흐르신다.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들이시며, 그 영은 강이시다.
 2. 삼일 하나님의 흐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 a.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며, ‘-에 이르다(into)’라는 말은 ‘-이 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b.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자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D.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 곧 그분의 충만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마음의 갈망이자 선한 기쁨이다 — 렘 2:13, 애 3:22-24, 고전 1:9, 엡 1:5, 9, 22-23.
- E.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풀어 주거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 — 계 22:1, 17.
- F.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수이신 생명의 영이 부족할 때마다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이신 구원하시는 영의 풍성함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 출 17:1-7, 민 20:2-13.

III. 예레미야서의 핵심의 또 하나의 방면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지를 드러 내는 것이다.

- A.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 렘 17:9.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계속)

1. 사람의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마음에 관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며 그 상태가 치유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법을 기록하시는 판이 될 수 있다 — 램 31:33, 비교 고후 3:3.
 2.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실 길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은 사람의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확장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에 따라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처리하시는 방법이다.
- B. “구스인이 그 피부를, /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 램 13:23.
1. 생수의 근원이자 원천(램 2:13)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악하게 되었고, 바꿀 수 없는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처럼 바뀌지 않는 죄악된 본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실지 상태를 드러낸다.
 2.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신으로는 치유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 롬 7:18, 마 12:34-35, 15:7-11, 18-20, 대상 28:9, 비교 겔 36:26-27, 램 32:39-40.
- C. 영광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상을 참되게 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에 관하여 양심 안에서 빛 비춤을 받는다. 우리 자신에 관해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느냐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에 달려 있다 — 사 6:5, 요 12:41, 욥 42:5-6, 비교 눅 5:8.
1. 우리가 주님을 더 보고 폭로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과 갖는 교통은 주님의 피의 끊임없는 씻음에 의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 — 요일 1:7, 9.
 2.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3. 우리는 하나님을 뵈므로써 변화되는데(고후 3:16, 18, 마 5:8),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뵈 때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옛 요소는 배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뵈는 것은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게 된다.
 4.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바로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아침 부흥을 할 때, 비록 십오 분이나 이십 분

메시지 2 (계속)

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곧 그 영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다.

5.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거나, 그분께 이야기하거나, 짧은 기도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에 속한 무언가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우리는 신성한 변화를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완결되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일어난다.
6. 하나님을 더 뵈고 더 알고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혐오하고 더 부인하게 된다 — 욥 42:6, 마 16:24, 눅 9:23, 14:26.

IV. 예레미야서의 핵심의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이다.

A.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을 일으키리니 ... /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리니 / 이것이 그의 이름이라.” — 렘 23:5-6, 비교 33:16.

1. ‘여호와 우리의 의’는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의로운 한 순’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은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신 바로 그 여호와이시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 곧 다윗의 주님(마 22:42-45, 비교 계 5:5, 22:16)이심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자신(다윗의 주님)인 다윗의 순(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어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되셨다(고전 1:30).
 - a.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행 10:43),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롬 3:24, 26) 우리에게 의의 겉옷이신 그리스도를 입히실 수 있다(사 61:10).
 - b. 이로 말미암아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골 2:9)께서 우리의 생명(3:4상)과 내적인 생명의 법(렘 31:33)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온 존재 안에 분배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새 언약, 새 유언이시다 — 사 42:6, 49:8, 렘 31:31-34, 히 8:8-12.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계속)

1. 헬라어에서는 ‘언약’과 ‘유언’이 같은 말이다.
 - a. 언약과 유언은 동일한 것이지만, 언약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것은 언약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유언이 된다. 유언(testament)은 오늘날의 용어로 유언장(will)이다.
 - b. 언약은 언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성취하겠다는 약속들을 담고 있는 계약이지만, 유언은 이미 성취된 어떤 것을 상속받을 사람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을 말하는 유언장이다 — 히 9:16-17, 비교 신 11:29, 28:1, 15, 렘 31:31-32.
2. 율법의 옛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 요 1:16-17.
 -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옛 언약이 묘사하는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신다 — 겔 36:26-27, 롬 8:2, 4, 6, 10.
 - b.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롬 6:23, 3:21, 10:3-4, 눅 22:20, 히 9:16-17),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과 그 모든 유산이 되셨다(고전 15:45하, 사 42:6, 빌 1:19).
 - c.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새 언약의 두루마리를 펴셨으며,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자 곧 집행자로서 새 언약의 내용들을 이행하고 계신다 — 계 5:1-5, 히 8:6, 9:15, 12:24.
 - d.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패배시키셨으며, 구속하는 어린양으로서 그리스도는 타락한 사람의 죄와 죄들을 없애셨고, 일곱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두루마리의 내용들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신다 — 계 5:5-6, 요 1:29.
 - e.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으며, 이 언약은 그리스도이다. 신약에 있는 수백 가지 모든 유산들의 실재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다 — 창 22:18상, 갈 3:14, 고전 1:30, 15:45하, 엡 1:3, 3:8, 요 20:22.
3. 우리의 영은 새 언약의 모든 유산들이 있는 ‘은행 계좌’이다.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이 모든 유산들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 롬 8:2, 10, 6, 11, 16, 히 8:10, 요 16:13.

메시지 2 (계속)

4. 새 언약의 중심과 내용과 실재는 내적인 생명의 법이다(롬 8:2). 본질에 있어서 이 법은 신성한 생명을 가리키고, 신성한 생명은 삼일 하나님이며,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실재화되신다(골 2:9, 고전 15:45).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심으로 그분의 선민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 a.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이 생명은 하나의 법, 곧 자연스러운 능력과 자동적인 법칙이다 — 히 8:10, 롬 8:2.
 - b. 새 언약의 법은 그 생명에 따르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고, 그 기능에 따르면 전능한 신성한 역량이다. 이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c. 본질에 있어서 이 법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기능에 있어서 이 법은 우리를 신화하는 역량을 갖고 있다(롬 8:2, 10, 6, 11, 28-29). 더 나아가 내적인 생명의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롬 12:3-8, 엡 4:11, 16)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고전 12:27, 엡 5:30)로 조성한다.
 - d. 생명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의 중심인 우리의 영에서부터 둘레인 우리의 마음으로 퍼지는 것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히 8:10, 롬 8:9, 엡 3:17).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움직이시어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기심으로써,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후 3:3).
 - e.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기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심지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역량을 갖는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충만이 된다 — 엡 3:16-21.